

[1~2] 다음은 진로 탐색 시간의 학생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저는 여행에 관심이 많아서 진로를 여행 관련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행과 관련된 직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공정여행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학생들의 반응을 듣고) 네,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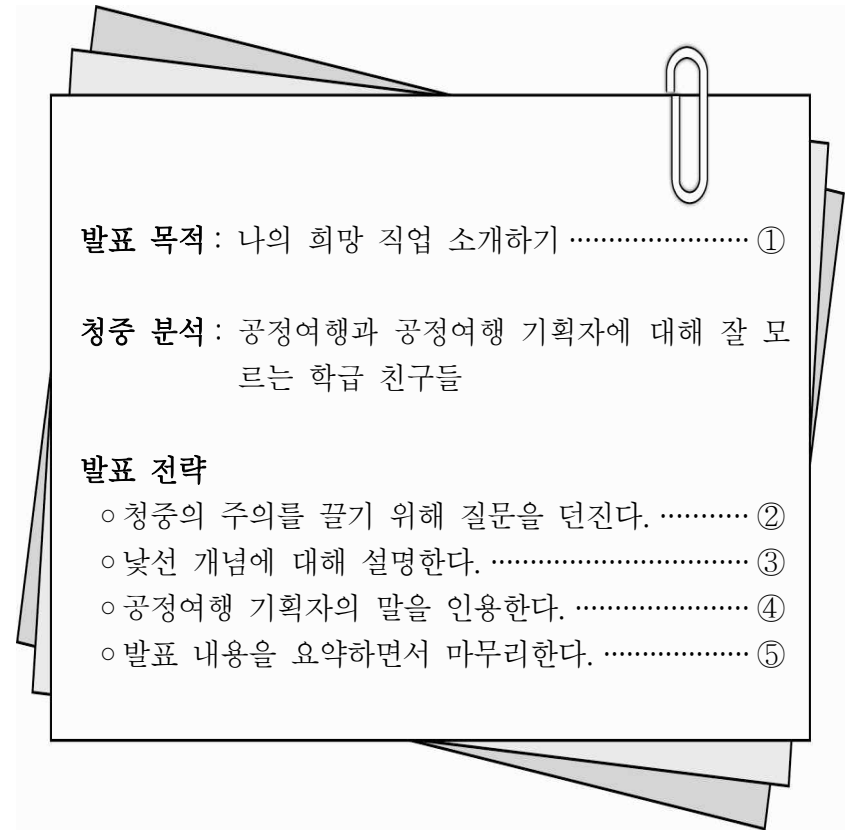
공정여행은 기존 해외여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등장한 새로운 여행 방식입니다. 보통 우리는 여행자가 지불한 비용이 현지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는 외국의 관광 기업으로 빠져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행지의 환경과 문화재가 훼손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공정여행 기획자는 바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현지의 문화와 현지인의 삶을 존중하는 여행을 기획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만나본 공정여행 기획자 김○○ 씨는 공정여행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으로, 현지인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와 식당 이용하기,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여행지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현지인들과 교류하기 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공정여행 기획자는 여행자들이 현지의 환경을 보호하고 문화를 제대로 체험하게 하는 한편 현지인들도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여행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여행 기획자는 새롭고 유익한 여행을 만든다는 점에서 즐거운 점도 있지만 힘든 점도 많습니다.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 식당을 직접 찾아다니며 섭외해야 하고 여행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공정여행 기획자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낍니다. 앞으로 여러 나라의 문화와 현지인들의 삶을 틈틈이 알아보면서 공정여행 기획자의 꿈을 키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의 꿈을 지켜 봐 주세요.

1. 다음은 위 발표를 위한 사전 계획이다. 발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 발표에 대한 청중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정여행은 기존 해외여행의 장점을 극대화한 것이겠군.
- ② 공정여행은 여행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겠군.
- ③ 공정여행으로는 현지의 문화를 체험하는 데 한계가 있겠군.
- ④ 공정여행 상품을 기획할 때는 현지인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겠군.
- ⑤ 공정여행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겠군.

3. 다음은 텔레비전 대담의 일부이다. 마지막에 이어질 진행자의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진행자: 요즘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으로 탄소중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탄소중립이 무엇입니까?
대담자: 네, 탄소중립은 개인이나 기업이 배출한 양만큼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여 이산화탄소 증가량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개인들은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대담자: 우선, 탄소 계산기를 이용하여 자신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을 계산합니다. 그런 후, 자전거 타기, 적정 실내 온도 유지하기 등의 노력을 통해 이산화탄소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게 하고도 줄이지 못한 배출량은 어떻게 합니까?
대담자: 그럴 때는 개인이 중개업체를 통해 이산화탄소 상쇄 상품을 구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중개업체가 개인을 대신하여 나무를 심고 관리하거나 신재생 에너지 시설에 투자하여 탄소중립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시민 인터뷰를 보겠습니다.



진행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봤는데요, 시민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마디 여쭙 보겠습니다.

- ① 개인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②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 ③ 이산화탄소 상쇄 상품 중개업체를 관리·감독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 ④ 개인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 ⑤ 중개업체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4~5] 다음은 친구 간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소영: 동아리 발표하느라 힘들었지? 정말 잘 하던데.
영미: 고마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
소영: ㉠ 너의 발표를 듣고 친구들이 큰 박수를 치는 것을 보니 최선을 다해 발표를 준비한 것 같아.

영미: 그래? (한숨을 쉰다.)
소영: ㉡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슨 일 있어?
영미: 별일 아니야.
소영: ㉢ 괜찮아. 말해 봐. 우린 친구잖아.
영미: 사실, 발표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 언니에게 물었는데, 건성으로 대답하는 거야.
소영: 그랬구나. ㉣ 언니가 건성으로 대답해서 속상했구나.
영미: 그래. 언니에게 “설명을 대충하니 이해가 안 되잖아.”라고 말했더니, “얼마나 더 자세히 말해줘야 하니?”라고 하는 거야. 그 말에 짜증이 나서 방문을 쾅 닫고 나와 버렸어.
소영: 그런 일이 있었구나. ㉤ 언니 말에 짜증이 나서 방문 나와 버렸구나.
영미: 응. 그런데 그러고 나니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소영: 수업 시간에 공손성의 원리를 배웠는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에는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려서 상대방이 관용을 베풀 수 있게 하는 것도 있대. 이 방법을 사용해서 말해 보는 건 어때? [A]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청중의 반응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있다.
- ② ㉡은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반응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의사소통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 ④ ㉣은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며 상대방을 위로하고 있다.
- ⑤ ㉤은 상대방의 말을 평가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5. 대화 내용과 [A]를 참고할 때 ‘영미’가 언니에게 건낼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짜증 내고 나가서 미안해. 다음부터는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조심하면 좋겠어.”
- ② “나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한 번 더 부탁했어야 했는데 짜증 내며 방문 나가버려서 미안해.”
- ③ “언니가 건성으로 설명해 주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났어. 앞으로 언니한테 버릇없이 굴지 않을게.”
- ④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많이 놀랐지? 둘 다 잘못했으니까 지난 일은 다 잊고 이제부터 잘 지내자.”
- ⑤ “언니가 대충 설명해 주니까 그랬잖아. 다음부터는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내 수준에 맞게 설명해 주면 좋겠어.”

6. 학생이 <원문>을 읽고 <요약문>을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활용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 문>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사소통 매체는 이전의 것과는 다른 어떤 특징이 있을까? 최초의 인류가 사용한 의사소통 매체는 간단한 몸짓이나 눈짓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만 거리가 떨어져도 의사를 교환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소리(말)였다. 하지만 소리는 금방 사라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이미지이다. 이미지는 좀 더 추상화된 기호인 문자로 이어졌다. 이렇게 발전해 온 의사소통 매체는 멀티미디어의 발전에 힘입어 소리(말), 이미지, 문자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터넷 채팅 중에 문자와 이모티콘, 효과음을 섞어 쓰며 문자와 이미지 그리고 소리를 두루 활용하는 것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요약문>

인류는 각 매체의 한계를 극복하며 의사소통 수단을 발전시켜 왔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사소통 매체는 멀티미디어의 발전으로 여러 가지 매체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 ① 유사한 내용은 압축하여 간결하게 제시한다.
- ② 원문의 중심 문장을 찾아서 이를 중심으로 요약한다.
- ③ 논지의 순서를 바꾸어 주제가 보다 분명히 드러나게 한다.
- ④ 원문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자기 말로 바꿔 쓴다.
- ⑤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려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삭제한다.

(나) 신문 기사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 300여만 개 중 대기업은 2,800여 개로 0.1%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청년들은 대기업 구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일자리가 부족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찾아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취업 정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청년 구직자들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다) 전문가 의견

중소기업은 산업구조의 저변을 형성하며 경제 발전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중소기업에 대해 '3D 업종', '이류', '불안정' 등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중에는 근무 여건과 기술 수준 등이 일반 국민이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기업이 의외로 많습니다.

7.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방안'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할 때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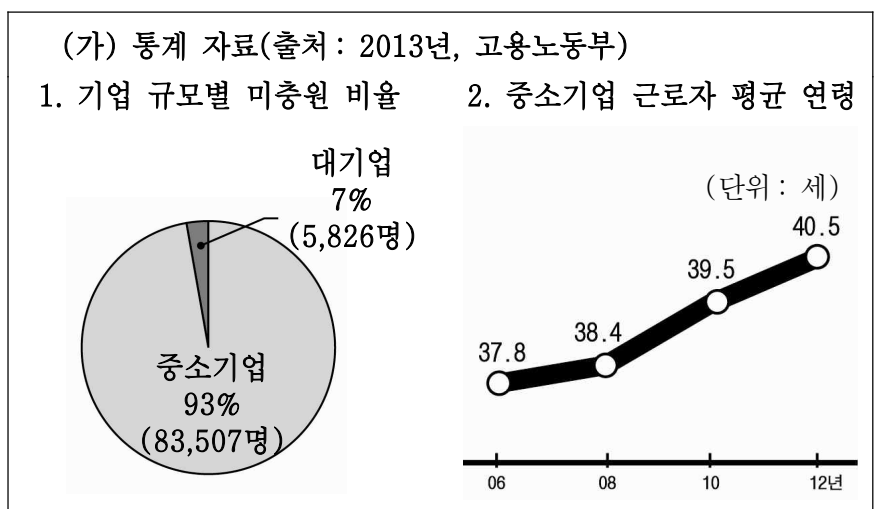
- ① (가)-1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태를 보여준다.
- ② (나)를 활용하여 청년 구직자들의 대기업 쏠림 현상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다.
- ④ (가)-1과 (나)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인력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 ⑤ (가)-2와 (다)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8.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 문구를 작성하려고 한다. <조건>을 모두 충족한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 건>

- (다)에 제시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포함할 것.
- 대구법을 사용할 것.

[7~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①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에도 시들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입니다.
- ②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보다 멀리 자신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③ 가느다란 실들이 모여 굵은 밧줄이 됩니다. 여러분의 힘이 모여 새로운 분야가 개척됩니다.
- ④ 좋은 운동화라도 신발 끈이 없으면 잘 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중소기업입니다.
- 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탄탄해야 경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조사'의 특징을 이끌어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동생이 책을 읽는다. / 여기가 천국이다.
 ㄴ. 엄마와 나는 영화를 보았다. / 나랑 동생은 학교로 갔다.
 ㄷ. 오늘은 물만 마셨다. / 오늘은 물도 마셨다.
 ㄹ. 꽃이 예쁘게도 피어 있다. / 천천히만 가거라.
 ㅁ. 이것이 좋다. / 이것 좋다. / 이것만으로도 좋다.

- ① ㄱ: 앞의 체언이 문장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해 준다.
- ② ㄴ: 두 체언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준다.
- ③ ㄷ: 앞의 체언을 다른 품사로 만들어 준다.
- ④ ㄹ: 체언 이외에 용언이나 부사 뒤에 붙어 쓰이기도 한다.
- ⑤ ㅁ: 생략하거나 둘 이상 겹쳐 쓰이기도 한다.

13.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의 발음대로 적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꽃(花)'이란 단어의 경우 '꽃', '꽃이', '꽃나무'를 소리대로 적으면 [꼐], [꼬치], [꼐나무]가 되는데, 이와 같이 적으면 그 뜻이 얼른 파악되지 않고 독서의 능률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꽃'처럼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 방법, 즉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붙은 것이다.

<보기 2>

ㄱ. 거리를 좁히다.
 ㄴ. 산 너머로 넘어 갔다.
 ㄷ. 읽지 않고는 읽기 능력이 길러지지 않는다.

- ① ㄱ의 '거리'는 표준어의 발음대로 적은 것이군.
- ② ㄱ의 '좁히다'는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군.
- ③ ㄴ의 '너머'는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군.
- ④ ㄴ의 '넘어'는 독서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표기이군.
- ⑤ ㄷ의 '읽-'은 뜻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표기이군.

14.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하나의 문장이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술어가 반드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을 갖추어야 한다. 이때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은 주어 이외에 목적어, 보어, 필수 부사어가 있다.

○ 철수는 어제 민규에게 책을 돌려주었다.

㉠ ㉡ ㉢ ㉣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15. <보기>는 '타다'의 의미 학습을 위해 활용한 사전의 일부분이다.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타다¹ 동
 ① **【...에】 【...을】** 탈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얹다.
 ¶ 버스에 타다. / 말을 타다.
 ② **【...을】**
 ① 도로, 줄, 산, 나무, 바위 따위를 밟고 오르거나 그것을 따라 지나가다.
 ¶ 원숭이는 나무를 잘 탄다.
 ② 어떤 조건이나 시간, 기회 등을 이용하다.
 ¶ 대화가 끊긴 틈을 타 자리에서 일어섰다.

타다² 동
 ① **【...에서/에게서 ...을】** 몫으로 주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받다.
 ¶ 회사에서 월급을 타다. / 상을 타다.
 ② **【...을】** 복이나 재주, 운명 따위를 선천적으로 지니다.
 ¶ 좋은 팔자를 타고 태어나다.

- ① 타다¹과 타다²는 둘 다 다의어이군.
- ② 타다¹과 타다²는 서로 동음이의 관계에 있군.
- ③ 타다¹-②와 타다²는 문장 구조상 목적어를 필요로 하겠군.
- ④ 타다¹-②-②의 예문으로 '음악적 소질을 타고 태어났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⑤ 타다²-①의 반의어로는 '주다'가 가능하겠군.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비자(韓非子)는 전국시대 한(韓)나라 사람으로 중국철학사에서 법가(法家)의 집대성자로 알려져 있다. 전국시대 말 진나라는 한나라를 공격했는데 이로 인해 한나라가 겪어야 했던 전쟁은 매우 비참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비자는 전국시대 국가들 사이의 세력 균형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통일에 의한 평화를 기대했다. 그는 하나의 강력한 국가가 탄생한다면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강력한 국가가 되려면 강력한 전제 군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전제 군주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法)’, ‘세(勢)’, ‘술(術)’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이란 군주가 신하를 포함한 백성을 통제하는 공개적이고 구체적인 규칙으로, 형법적 측면이 강하며 군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신하가 집행한다. ‘법’은 ‘세’를 바탕으로 군주를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때 ‘세’란 군주라는 자리가 가진 절대적 권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술’이란 군주가 신하들을 지배하는 방법으로, 평소 신하들의 언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가슴속에 넣어 두고 활용하는 것이다. ‘술’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하들이 ‘술’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비자는 군주가 ‘법’, ‘세’, ‘술’의 세 가지로 다스려야 국가가 부강해진다고 보았다.

㉠ 한비자의 이러한 통치 철학은 스승인 순자가 주장한 성악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지만,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려(慮)’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예(禮)’를 주입하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며 ‘예치(禮治)’를 주장했다. 한비자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순자와 동일하게 생각했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할 리가 없다며 ‘교화 가능성’을 부정했다. 그 때문에 인간의 본성 안에 들어 있는 사사로움을 찾아내어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비자의 사상은 진나라가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가 되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진나라는 너무 융통성 없이 ‘법’을 적용해 일찍 몰락하게 되었다. 전국시대처럼 각국이 전쟁을 일삼으며 각축을 벌이던 시절에는 ‘법’, ‘세’, ‘술’로써 부국강병을 이루는 것이 필요했지만, 진나라 이후의 통일 왕조에서는 한비자의 사상 대신에 유가 사상을 새로운 통치 철학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유가 사상이 도입된 이후에도 한비자의 법치주의의 영향은 지속되어 중국의 통일 왕조에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16. 윗글을 읽고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정리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질문 1. 한비자 통치 철학의 등장 배경은?
 ○ 전쟁으로 인한 비참한 상황 ①
 ○ 통일에 의한 평화 기대 ②

질문 2. 한비자 통치 철학의 실현 방안은?
 ○ ‘법’, ‘세’, ‘술’ ③

질문 3. 한비자 통치 철학의 역사적 평가는?
 ○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에 기여 ④
 ○ 부국강병을 이루지 못한 한계 ⑤

17. ㉠, ㉡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은 인간의 본성 안에 사사로움이 있다고 생각했다.
- ② ㉠과 달리 ㉡은 예를 통한 인간의 교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③ ㉠과 달리 ㉠은 인간의 본성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④ ㉠과 달리 ㉠은 성악설을 바탕으로 한 예치를 통치 철학으로 설정했다.
- ⑤ ㉠과 ㉡ 모두 엄격한 법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18.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삼국지』로 배우는 고사성어
음참마속(泣斬馬謖)

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쟁에서 왕의 명을 받은 제갈량이 위나라를 공격할 무렵의 일이었다. 위나라는 사마의를 보내 방어하도록 하였다. 이에 제갈량이 매우 아끼던 장수 마속이 출정을 자원하면서, 실패하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했다. 제갈량은 마속에게 평지에 진을 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마속은 이를 어기고 산에 진을 쳤다가 대패했다. 제갈량은 눈물을 머금고 군령을 어긴 마속을 처형할 수밖에 없었다. 제갈량의 결정은 엄격한 군율이 살아 있음을 전군에 알리기 위한 선택이었다.

- ① 제갈량이 마속을 처형한 것은 ‘법’을 적용한 것이겠군.
- ② 제갈량이 위나라를 공격한 것은 ‘법’을 적용한 것이겠군.
- ③ 제갈량이 마속을 매우 아낀 것은 ‘세’를 활용한 것이겠군.
- ④ 제갈량이 평지에 진을 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술’을 적용한 것이겠군.
- ⑤ 제갈량의 공격을 받은 위나라가 사마의를 통해 방어한 것은 ‘술’을 적용한 것이겠군.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연 상태의 산화구리에서 구리를 얻기 위해 숯(탄소)을 넣고 가열하는 방법은 옛날부터 사용해 왔다. 화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산소가 구리보다 탄소와 더 잘 결합하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 화학자들은 화합물을 만들 때 물질 간에는 더 잘 결합하는 정도, 즉 화학적 친화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A] 18세기 말 베리만은 화학적 친화력의 규칙을 밝히기 위해 물질 간의 상대적 인력을 추론하려 했다. 예를 들어, 어떤 화합물 AB에서 물질 B가 다른 물질 C에 의해서는 쫓겨나지만 또 다른 물질 D에 의해서는 쫓겨나지 않았다면 A에 대한 친화력은 C > B > D의 순이 된다. 그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까지 알려진 물질들의 친화력표를 작성하였다. 이를 받아들인 화학자들은 친화력표를 정교화해 가다 보면 어떤 규칙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화학적 친화력을 일으키는 힘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려웠다.

친화력에 대한 연구는 19세기에 돌턴이 제안한 원자 가설을 수용하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베르셀리우스는 원자가 가진 전기적 성질을 친화력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이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베르셀리우스는 당시 발견된 볼타 전지의 전극에서 기체와 금속이 분리되는 현상을 연구하여 원자는 (+) 또는 (-) 2가지 전하를 가지고 있으며, (-) 전하를 가진 원자는 전기력에 의해 (+) 전하를 가진 원자와 결합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론은 다른 전하를 가진 원소끼리 결합하는 것은 잘 설명할 수 있었지만, 같은 전하를 가진 원소끼리 더 강하게 결합하는 것을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베르셀리우스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는 20세기 이후 원자의 실체가 규명되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원자는 (+) 전하를 가진 핵과 (-) 전하를 가진 전자가 전기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핵 주위에는 일정 거리를 두고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겹의 껍질이 있는데, 가장 바깥 껍질, 즉 최외각을 채우면 안정된 상태가 된다. 최외각에 전자가 남거나 모자라는 원자들은 전자를 버리거나 얻어 이온이 됨으로써 안정된 상태가 되려고 한다. 이온들끼리는 전기적 인력에 의해 서로 결합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전에 베르셀리우스가 설명했던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외각에 전자를 채우는 것은 원자들끼리 전자를 공유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최외각에 전자가 모자라는 원자끼리 전자를 공유하여 결합하면 두 원자 모두 최외각의 전자를 채워 보다 안정된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는 화학적 친화력을 원자들이 보다 안정된 상태가 되려는 경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19.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사한 대상에 빗대어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중심 화제의 장단점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중심 화제를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④ 중심 화제에 대한 연구들을 시대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대립적인 견해들을 절충하며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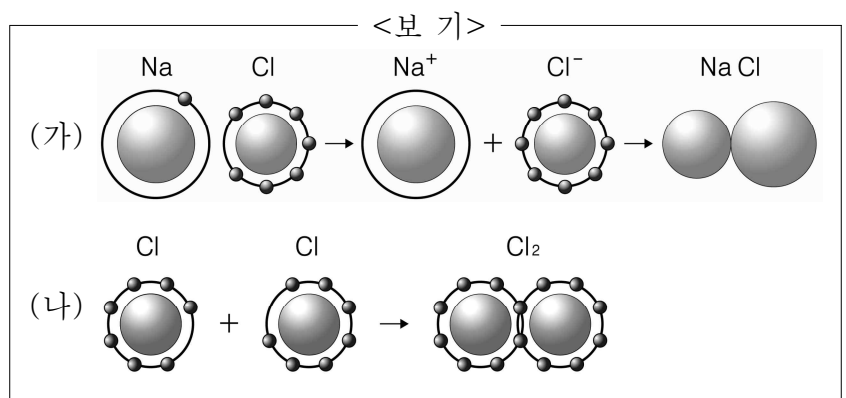
20. [A]를 참고할 때, <보기>의 실험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산소에 대한 친화력 순서로 올바른 것은?

<보 기>

실험 1: 산화철과 칼륨을 반응시켰더니 산화칼륨이 생성되었다.
 실험 2: 산화철에 은을 반응시켰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단, 실험 1과 실험 2의 조건은 같다.)

- ① 철>칼륨>은 ② 칼륨>철>은 ③ 은>철>칼륨
- ④ 철>은>칼륨 ⑤ 칼륨>은>철

21.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찾은 자료이다.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는 Na가 최외각 전자를 버리는 것을 보여 주므로 원자가 이온화하려는 경향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② (가)는 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이 이루어짐을 보여 주므로 베르셀리우스의 주장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③ (나)는 최외각에 전자가 모자라는 원자끼리의 결합을 보여 주므로 전자를 공유하는 결합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④ (나)는 같은 성질을 가진 원자끼리도 결합함을 보여 주므로 베르셀리우스가 설명하지 못했던 결합을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⑤ (가)와 (나) 모두에서 Cl이 전자를 얻고 있으므로 화학 결합은 전자를 얻는 것임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콩나물의 가격 변화에 따라 콩나물의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콩나물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도 콩나물의 수요량이 변할 수 있다. 시금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은 시금치를 콩나물로 대체한다. 그러면 콩나물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도 시금치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콩나물의 수요량이 증가할 수 있다. 또는 콩나물이 몸에 좋다는 내용의 방송이 나가면 콩나물 가격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콩나물의 수요량이 급증한다. 이와 같이 특정한 상품의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도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그 상품의 수요량이 변하는 현상을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는 소비자의 소득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가격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한다. 반대로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처럼 소득의 증가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재'라고 한다. 우리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재화들은 정상재이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하는 재화가 있는데 이를 '열등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용돈을 받아 쓰던 학생 때는 버스를 이용하다 취직해서 소득이 증가하여 자가용을 타게 되면 버스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이 경우 버스는 열등재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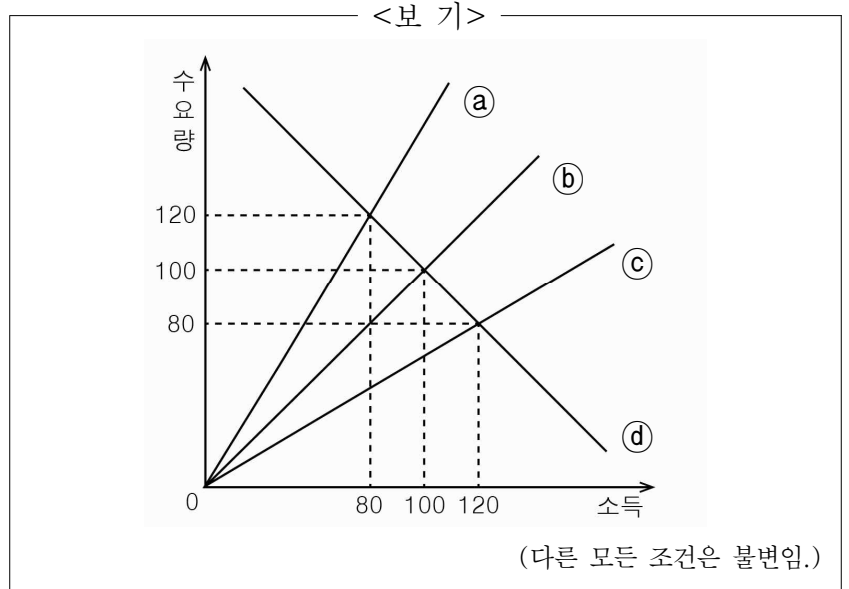
정상재와 열등재는 수요의 소득탄력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란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말한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양수인 재화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도 증가하므로 정상재이다. 반대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음수인 재화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므로 열등재이다. 정상재이면서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즉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수요량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사치재'라고 한다. 반면에 정상재이면서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은 재화를 '필수재'라고 한다.

정상재와 열등재는 가격이나 선호도 등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득만 변했을 때 재화의 수요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한 개념이다. 하지만 특정 재화를 명확하게 정상재나 열등재로 구별하기는 어렵다. 동일한 재화가 소득 수준이나 생활환경에 따라 열등재가 되기도 하고 정상재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는 일반적으로 정상재로 볼 수 있지만 소득이 아주 높아져서 취향이 달라지면 햄버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열등재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재화의 수요 변화는 재화의 가격뿐만 아니라 그 재화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다른 재화의 가격, 소비자의 소득, 취향, 장래에 대한 예상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22. 윗글을 통해 답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사치재는 수요의 소득탄력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② 사치재와 필수재의 예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 ③ 수요의 변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④ 정상재와 열등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⑤ 수요의 변화란 무엇인가?

23. <보기>는 소득에 따른 재화 a~d의 수요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수요량이 더 크게 증가하는 재화이다.
- ② b는 소득의 증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이다.
- ③ c는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이다.
- ④ d에 해당하는 재화로는 열등재가 있다.
- ⑤ a와 c는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양수인 재화이다.

24.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갑은 지하철 요금이 1,000원이고 한 달 용돈이 20,000원 일 때 지하철을 20번 탔고 용돈이 40,000원일 때 40번 탔다. 그런데 이번 달에 20,000원의 용돈을 받았지만 지하철 요금이 500원으로 내려서 40번 탈 수 있게 되었다.

- ① 지하철은 갑의 소득이 높아지면 정상재에서 열등재가 되는군.
- ② 지하철에 대한 수요 변화는 지하철에 대한 갑의 선호도로 결정되었군.
- ③ 지하철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 변화로 지하철 이용 횟수가 증가했군.
- ④ 지하철 요금의 인하는 갑의 소득이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를 유발하는군.
- ⑤ 지하철 요금과 갑의 소득 수준이 변하더라도 지하철에 대한 수요량은 변화할 수 없겠군.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알레고리는 상징을 통해 어떠한 현상이나 상황,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법이다. 상징은 연상이나 유사성 등의 상관관계에 기대어 추상적인 사물이나 개념 따위를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일이나 그 대상물을 가리킨다. 그래서 알레고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이야기의 이중 메시지 구조를 갖게 된다. ㉡ 그런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미술에서는 정지된 형상의 상징적 이미지를 조합하여 알레고리를 표현한다.

미술에서 알레고리는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관한 것보다는 아름다움, 정의, 평화, 사랑 등의 추상적인 개념이나 인간의 삶에 대한 교훈, 도덕적 가치를 드러내는 데 주력한다. 물론 미술의 알레고리가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럴 때도 그것은 상징을 통해 추상적인 가치를 드러내었다.

㉢ 한 예로 18세기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여제-정의의 여신의 신전에 선 입법자」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알레고리적 초상화라고 불리는데, 인물의 이미지 자체는 알레고리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여러 상징들이 동원돼 그 사람의 덕이나 위대성 등을 드러내고 있다. 여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곳에는 조각상이 있다. 그것은 저울



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의의 여신상임을 알 수 있다. 조각상 앞 제단에는 잠의 신을 상징하는 양귀비가 타고 있는데, ㉣ 이를 통해 평화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제 곁에 서 있는 새는 번개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우스의 독수리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상징들을 통해 예카테리나가 제우스에 버금가는 위대한 통치자이자 평화의 수호자, 정의로운 입법자임을 표현하고 있다.

알레고리를 활용한 미술 작품은 현대에 들어와서는 많이 제작되지 않는다. 알레고리는 교훈적이거나 도덕적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 이러한 주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현대 미술가들과는 맞지 않았다. 또한 점, 선, 면, 색과 같은 순수한 조형 요소로만 표현된 추상 회화의 등장은 알레고리적 표현을 위한 구체적인 형상을 아예 사라지게 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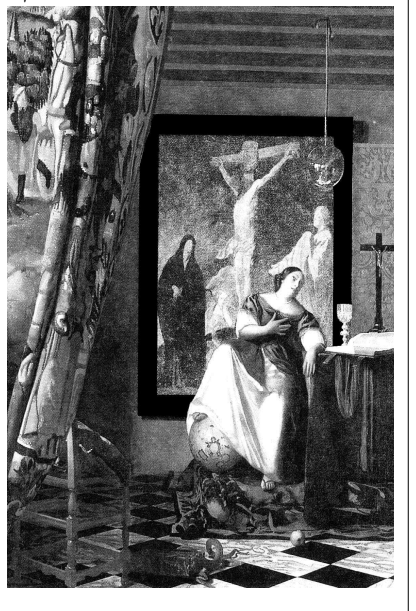
25. 윗글의 집필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술에 사용된 알레고리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 ② 미술에 사용된 알레고리의 기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 ③ 알레고리가 나타난 미술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 ④ 알레고리의 현대적 적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 ⑤ 알레고리와 상징을 비교하기 위해서

26.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그림은 베르메르가 17세기에 그린 「신앙의 알레고리」이다. 이 그림에는 흰색과 푸른색의 옷을 입은 여인이 한 손은 가슴에 얹고 한쪽 발은 지구의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다. 탁자에는 책이 펼쳐져 있고 십자가와 금잔도 보인다. 바닥에는 한 입 베어 먹은 사과와 돌에 눌러 피를 흘리는 뱀이 뒹군다. 벽에 걸린 그림에는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의 모습이 보인다.



- ① 벽에 걸린 그림과 전체 그림의 구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 이중 메시지 구조를 알 수 있겠군.
- ② 그림에 있는 상징적 소재들의 조합을 통해 작가가 전달하려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겠군.
- ③ 여인이 지구의 위에 발을 올려놓은 것의 의미는 지구의가 가진 추상적 개념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겠군.
- ④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의 삶에 대해 이해한다면 벽에 걸린 그림의 상징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군.
- ⑤ 여인의 복장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면 흰색과 푸른색에서 연상되는 의미를 떠올려 보는 것이 필요하겠군.

27. 윗글을 읽을 때, ㉠~㉤에서 하게 되는 사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념의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므로 ㉠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확인해야겠어.
- ② 내용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 뒤에는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음을 생각해야겠어.
- ③ 읽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에 이어진 사례를 통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야겠어.
- ④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을 통해 강조되는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따져 보아야겠어.
- ⑤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며 읽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지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겠어.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난이야 한낱 남루(襤褸)에 지나지 않는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 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청산(靑山)이 그 무릎 아래 지란(芝蘭)을 기르듯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목숨이 가다가다 **농울쳐 휘어드는**
오후의 때가 오거든,
내외들이여, 그대들도
더러는 앉고
더러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지어미는 지아비를 물끄러미 우러러보고,
지아비는 지어미의 이마라도 짚어라.

어느 **가시덤불 쑥구렁**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늘 옥돌같이 호젓이 문혔다고 생각할 일ियो,
청태(靑苔)라도 자욱이 끼일 일인 것이다.
- 서정주, 「무등을 보며」 -

(나) 세상은 또 한 고비 넘고
잠이 오지 않는다
㉠ 꿈결에도 식은땀이 등을 적신다
몸부림치다 와 닿는
㉡ 둘째놈 애린 손끝이 천 근으로 아프다
세상 그만 내리고만 싶은 나를 애비라 믿어
이렇게 잠이 평화로운가
바로 누고 이불을 다독여준다
㉢ 이 나이토록 배운 것이라곤 원고지 메꿔 밥 비는 재주
쫓기듯 붙잡는 원고지 칸이
㉣ 마침내 못 건널 운명의 강처럼 넓기만 한데
달아오른 불덩어리
초라한 몸 가릴 방 한 칸이
망망천지에 없단 말이나

웅크리고 잠든 아내의 등에 얼굴을 대본다
밖에는 바람 소리 사정없고
㉤ 며칠 후면 남이 누울 방바닥
잠이 오지 않는다
- 김사인, 「지상의 방 한 칸 - 박영한 님의 제(題)를 빌려」 -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색채어를 사용하여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긴박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⑤ 처음과 끝을 대응시켜 시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32. 다음은 (가)를 감상하기 위한 활동이다. 활동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활동 과제	활동 내용
제목을 보며 작품의 내용을 짐작해 보자.	무등산의 모습을 보며 느끼거나 깨달은 점을 노래한 작품일 거야.
모르는 시어의 뜻을 찾아보자.	○ 남루: 낡아 해진 옷 ○ 갈매빛: 짙은 초록빛 ○ 농울치다: 큰 물결이 사납게 일어나다. ○ 청태: 푸른 이끼
시적 대상이 가지는 속성을 생각해 보자.	여름 산이 '갈매빛'으로 서 있는 모습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어. ①
화자의 상황과 태도를 찾아보자.	가난을 '남루'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을 보니 가난을 별것 아니라고 보고 있어. ②
	'농울쳐 휘어드는' 것과 같은 힘든 시간이 오면 가족끼리 믿고 의지하며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해. ③
위의 활동을 종합하여 작품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가시덤불 쑥구렁'과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여 '청태'처럼 사는 것을 지향하고 있어. ④
	화자는 산을 바라보며 힘든 현실에도 의연히 대처하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 ⑤

33.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의 마음이 편치 않음을 알 수 있다.
- ② ㉡: 가장으로서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 ③ ㉢: 화자의 직업이 글 쓰는 일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 화자는 현재의 처지를 운명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 ⑤ ㉤: 잠이 오지 않는 원인이 제시되고 있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련님 들어가니 사또 말씀하시되,
 “서울에서 동부승지 교지가 내려왔다. 나는 문서나 장부를 처리하고 갈 것이니 너는 식구들을 데리고 내일 바로 떠나거라.”
 도련님 아버지 명을 듣고 한편으로 반갑고 다른 한편으로는 춘향을 생각하니 흥중이 답답하다. 사지에 맥이 풀리고 간장이 녹는 듯, 두 눈에서 더운 눈물이 펄펄 솟아 옥 같은 얼굴을 적시거늘 사또 보시고,
 “너 왜 우느냐. 내가 남원에서 평생 살 줄 알았느냐. 내직(內職)으로 승진하였으니 섭섭하게 생각 말고 오늘부터 짐을 급히 꾸러 내일 오전 중에 떠나거라.”
 겨우 대답하고 물러나와 안채로 들어간다. 사람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모친과는 거리낌이 적은지라. 춘향이 얘기를 울며하다가 꾸중만 실컷 듣고 춘향의 집으로 간다. 설움은 기가 막히나 노상에서 울 수 없어 참고 나오는데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지라. 춘향 문전 당도하니 통째 건더기째 보자기째 왈각 쏟아져 놓으니,
 “어푸 어푸 어허.”
 춘향이 깜짝 놀라 왈각 뛰어 내달아,
 “애고 이게 웬일이요?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꾸중을 들으셨소? 오시다가 무슨 분한 일을 당하여 계시오? 서울서 무슨 기별이 왔다더니 상복 입을 일이 생겼소? 점잖으신 도련님이 이것이 웬일이요?”
 춘향이 도련님 목을 담속 안고 치맛자락을 걷어잡고 옥 같은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이리 씻고 저리 씻으면서,
 “울지 마요. 울지 마요.”
 도련님 기가 막혀 울음이란 것이 말리는 사람이 있으면 더 울던 것이었다. 춘향이 화를 내어,
 “여보 도련님! 우는 입 보기 싫소. 그만 울고 까담이나 말해보요.”
 “사또께옵서 동부승지가 되셨단다.”
 춘향이 좋아하여,
 “댁의 경사요. 그러면 왜 운단 말이요?”
 “너를 버리고 갈 터이니 내 아니 답답하냐.”
 “언제는 남원 땅에서 평생 사실 줄로 알았겠소. ㉠ 나와 어찌 함께 가기를 바라리오. 도련님 먼저 올라가시면 나는 여기서 팔 것 팔고 추후에 올라갈 것이니 아무 걱정 마시오. 내 말대로 하면 궁색하지 않고 좋을 것이요. 내가 올라가더라도 도련님 큰 맥으로 가서 살 수 없을 것이니 큰 맥 가까이 방이나 두엇 되는 조그마한 집이면 족하오니 염탐하여 사 두소서. 우리 식구가 가더라도 공밥 먹지는 아니할 터이니 그렇저렇 지내다가, 도련님 나만 믿고 장가 아니 갈 수 있소. 부귀공명 재상가 요조숙녀를 가리어서 혼인할지라도 아주 잊지는 마옵소서. ㉡ 도련님 과거 급제하여 벼슬 높아 임지로 떠나가서 신임 관리로 행차할 때 첩으로 내세우면 무슨 말이 되오리까? 그리 알아 조처하오.”
 “그게 이를 말이나. 사정이 그렇기로 네 얘기를 아버지께는 못 여쭙고 어머니께 여쭙으니 꾸중이 대단하시더라. ㉢ 양반 자식이 부형 따라 지방에 왔다가 기생집에서 첩을 만나 데려가면 앞날에도 좋지 않고 조정에 들어 벼슬도 못 한다더구나. 불가불 이별이 될밖에 별 수 없다.”
 춘향이 이 말을 듣더니 별안간 얼굴색을 바꾸며 안절부절이

라. 붉으락푸르락 눈을 가늘게 뜨고 눈썹이 꼳꼳하여지면서 코가 벌렁벌렁하며 이를 뽀드득 뽀드득 갈며, 온몸을 수수익 뜰 듯하고 매가 핑을 꿰 차는 듯하고 앉더니,
 “허허 이게 웬 말이요.”

㉣ 왈각 뛰어 달려들며 치맛자락도 와드득 좌르륵 찢어 버리고 머리도 와드득 쥐어뜯어 싹싹 비벼 도련님 앞에다 던지면서,

“무엇이 어찌고 어째요. 이것도 쓸데없다.”

거울이며 빗이며 두루 쳐 방문 밖에 탕탕 부딪치며, 발도 동동 굴러 손뼉치고 돌아앉아 자탄가(自嘆歌)로 우는 말이,

“서방 없는 춘향이가 세간살이 무엇하며 단장하여 뉘 눈에 사랑받을꼬? 몸쓸 년의 팔자로다. 이팔청춘 젊은 것이 이별 될 줄 어찌 알랴. 부질없는 이내 몸을 허망하신 말씀 때문에 신세 버렸구나. 애고 애고 내 신세야.”

천연히 돌아앉아,

“여보 도련님, 이제 막 하신 말씀 참말이요 농담이요. 우리 둘이 처음 만나 백년언약 맺은 일도 마님과 사또께옵서 시키시던 일이오니까? 웬 핑계요. 광한루에서 잠깐 보고 내 집에 찾아와서 밤 깊어 인적 없는 한밤중에 도련님은 저기 앉고 춘향 나는 여기 앉아 날더러 하신 말씀, 오월 단오 밤에 내 손길 부여잡고 우동통통 밖에 나와 맑은 하늘 천 번이나 가리키며 ㉤ 굳은 언약 어기지 않겠노라고 만 번이나 맹세하기에 내 정녕 믿었더니 결국 가실 때는 툭 떼어 버리시니 이팔청춘 젊은 것이 낭군 없이 어찌 살꼬. 가을 길고도 깊은 밤 외로운 방에 홀로 님 생각 어찌할꼬. 모질도다 모질도다 도련님이 모질도다. 독하도다 독하도다 서울 양반 독하도다. ㉥ 원수로다 원수로다 존비귀천(尊卑貴賤) 원수로다. 천하에 다정한 게 부부간 정이건만 이렇듯 독한 양반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애고 애고 내 일이야. 여보 도련님 춘향 몸이 천하다고 함부로 버려도 되는 줄로 알지 마요. 박명헌 신세 춘향이 입맛 없어 밥 못 먹고 잠이 안 와 잠 못 자면 며칠이나 살 듯하오. 사랑에 병이 들어 애통해하다가 죽게 되면 가련한 내 영혼은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될 것이니, 존귀하신 도련님께 그것은 어찌 재앙 아니리오? 사람 대접을 그리 마요. 사람을 대하는 법이 그런 법이 왜 있을꼬. 죽고지고 죽고지고. 애고 애고 설운지고.”

한참 이리 진이 빠지도록 서럽게 울 때 춘향 어미는 전후 사정도 모르고,

“애고 저것들 또 사랑싸움이 났구나. 어 참 아니꼽다. 눈구석에 쌍가래뿔 설 일 많이 보네.”

- 작자 미상, 「춘향전」 -

3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 ‘춘향 어미’는 춘향에게 닥친 사정을 알고 있다.
- ㉡ ‘사또’는 아들이 슬피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있다.
- ㉢ ‘춘향’은 도련님이 남원에 계속 머무를 것이라고 믿고 있다.
- ㉣ ‘모친’은 아들이 춘향을 첩으로 삼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 ㉤ ‘도련님’은 춘향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35. 윗글에 나타난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경 묘사를 통해 감정의 변화 양상을 드러낸다.
- ② 음성 상징어를 통해 행위를 생동감 있게 그린다.
- ③ 주변 인물을 통해 중심인물의 긍정적 면모를 부각한다.
- ④ 전기적(傳奇的) 사건을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 ⑤ 과거와 현재의 반복적 교차를 통해 이야기에 입체감을 부여한다.

36.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욕망의 실현을 가로막는 현실을 비판하려는 춘향의 의도를 알 수 있다.
- ② ㉡: 춘향이 도련님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욕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 ③ ㉢: 춘향의 욕망이 달성되기 어려운 이유를 알 수 있다.
- ④ ㉣: 욕망이 좌절된 것에 대한 춘향의 감정을 알 수 있다.
- ⑤ ㉣: 욕망 좌절의 원인이 신분 제도와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37. ㉠에 나타난 도련님의 행동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 ① 금상첨화(錦上添花)
- ② 동병상련(同病相憐)
- ③ 일구이언(一口二言)
- ④ 정저지와(井底之蛙)
- ⑤ 천생연분(天生緣分)

[38~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

굽어보면 천심녹수(千尋綠水) 돌아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十丈) 홍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 이현보, 「어부단가(漁父短歌)」 -

- * 홍진: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북궐: 임금이 계신 경복궁의 다른 이름.
- * 제세현: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선비.

38.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다.
- ② 서로 다른 성격을 띤 공간을 대비하고 있다.
- ③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대상의 의미를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다.

39. 윗글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일엽편주'를 타고 쓸쓸한 처지를 인식한다.
- ② 화자는 '만경파'에서 삶의 위태로움을 경험한다.
- ③ 화자는 '만첩청산'을 돌아보며 무력감을 느낀다.
- ④ 화자는 '월백'한 풍경에서 인생무상을 깨닫는다.
- ⑤ 화자는 '제세현'을 떠올려 근심에서 벗어나려 한다.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또 있다. 또 전화 애긴데, 아까도 말한 대로 아저씨에게는 별의별 전화가 다 걸려 오는데, 한번은 어떤 신문사에서 기자가 전화로 뭔가를 묻는 눈치였다. 대강 오가는 소리를 듣자니까 우리 아저씨더러 하루에 책을 몇 페이지나 읽으시며 그 외에 독서 방법은 어떤 것이 좋으냐고 묻는 모양이었는데 아저씨는 예의 그 ‘영등포의 밤’을 부른 어떤 저음 가수와 같은 착가라앉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 말입니다. 일정치는 않지만 하루에 보통 일이십 페이지는 읽지요. 그건 바쁜 때의 일이고 별일이 없으면 하룻밤에 명작소설 같은 가벼운 것은 한 권을 다 때는 수도 있어요. 네? 독서법은? 그야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 개성에 맞는 책을 골라서 틈나는 대로 읽는 게 좋겠지요. 그러니까 책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핫핫핫…….”

그런 말 끝에 웃어서는 안 될 텐데 또 예의 그 일 초 간격 짜리 웃음을 웃었다. 이런 얘기도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 집에 책이야 많지만 아저씨는 거의 책을 손에 드는 일이 없다. 신문도 펄럭펄럭, 후딱후딱 넘기는 바람에 신문 한 장을 다 읽는데 오 분이 채 안 걸린다. 책은 더군다나 잡는 걸 별로 못 보았다. 아침에 집을 나간다 하면 열한 시쯤에나 들어와서 피그르르 잠자리에 들어가는 처지에 어떤 때는 명작소설 한 권을 떼고 잔다고?

아저씨는 왜 그런 엉뚱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나는 모른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김 박사 김 박사 하고 존경 받고 돈 좀 모았다고 미끈한 외제 자가용을 뺑뺑거리고 다니는 사람도 구십 도는 아니라도 칠십 도로는 허리를 꺾게 만드는 우리 아저씨쯤 되면 그런 거짓말은 안 해도 될 텐데라고 나 자신이 안타까울 때가 있다.

(중략)

그날 밤이었을까. 나는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앉아 있는 응접실로 커피를 나르러 갔다가 우연히 두 분이 내 월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귀담아들었다. 두 분은 내가 들어가자 하던 얘기를 딱 그쳤는데, 이미 내가 들어가면서 들은 얘기는 분명 이랬다. 아저씨의 말이였다.

“잘 달래서 따둑거리라구. 그리고 당신도 그렇지, 나처럼 바쁜 몸이 식모 월급까지 신경 쓰게 됐어?”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끼면서 하마터면 쟁반 위의 커피를 엌지를 뻔했다. 서운했다. 정말 서운했다. 물론 아저씨처럼 큰일을 하는 분이 나 같은 것의 월급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저씨의 바깥에서의 말이나 행동으로 견주어 봐서, 다만 말로라도 그렇다. 지나가는 말로라도 ‘거 좀 올려 주지 그래.’ 이 말 한마디만 했어도 내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서운해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른 집에서도 우리 같은 애들의 월급은 대개 아주머니들이 정하고 바깥양반들은 재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 우리 같은 애들의 가슴에서 국이 끓고 있는지 밥이 끓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래서 나쁜 것이 없지만, 일단 얘기가 나오거나 아내의 상의를 받으면 그래도 다소는 호의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도량 있는 남자가 할 짓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 아저씨는 안 그랬다.

그런 다음날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갈비짜이다 비단이다를

한 짐 잔뜩 차에 싣고는 어디론지 핑 나갔다.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필경 아저씨보다도 더 높은 분에게 가는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내외분은 그전에도 명절 때만 되면, 아니 비단 명절 때가 아니라도 수시로 선물을 싸들고 어디론가 찾아가는 것을 보았으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아저씨만큼 세상에 알려질 만큼 알려진 높은 분이 또 딴 사람에게 교체할 리는 없고 어째서 그런 것일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곤 했다.

나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놀란 토끼처럼 허리를 칠십 도로 구부리고, 후딱하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의젓한 자세로 얘기를 하고 걸려 오는 전화마다 받들어 모시듯 하는 우리 아저씨 같은 분을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기는 하다. 기왕이면 그런 집에 있는 것이 한 가지라도 더 배우고 보는 것이 더 많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아름답던 산도 막상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뭐가 뭘지 천방지축으로 좋은 건지 나쁜 것인지를 모르듯이, 나도 너무 아저씨의 곁에 가까이 있어서 어떤 때는 무엇이 아저씨의 정체인지 잘 모를 때가 많다. 오히려 좋은 점보다는 헬렐레한 구석이 더 자주 눈에 띄어서, 속으로 이 맹추야 너는 사람 볼 줄도 모르니 하고 스스로의 살을 꼬집은 때가 많다.

[A] 어려서의 경험이지만 나는 우리 동네에서 십 리 가량 떨어진 천방산이 먼 데서 볼 때에는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하지만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꽤 거리를 지어서 막상 그 산 속에 들어가 고사리며 취나물을 캐다 보면 우리 뒷동산이나 별다른 것이 없었다.

지금의 내가 그럴까.

큰 나무의 바로 밑동에 서서 보면 그 나무의 꼭대기가 안 보이듯이 지금의 내가 그럴까.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 최일남, 「너무 큰 나무」 -

4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외양을 상세하게 묘사하여 인물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③ 대화를 사용하여 인물의 성격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시대 상황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⑤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나란히 배치하여 갈등의 원인을 탐색하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일반적으로 소설의 독자는 서술자에 기대어 소설 속의 세계를 파악하게 된다. 그러나 서술자 중에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여 독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 경우 독자는 서술자의 태도를 자세히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의 상황에 대해 독자 스스로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 ① ‘나’는 ‘헬렐레한 구석’으로 인해 ‘아저씨’에 대한 판단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
- ② ‘나’는 ‘아저씨’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뒷동산’과 같은 모습을 발견한다.
- ③ ‘나’는 판단하기 힘든 ‘아저씨의 정체’를 보이지 않는 ‘나무의 꼭대기’와 같다고 여기고 있다.
- ④ ‘독자’는 ‘나’처럼 나무의 ‘밑동’과 같은 위치에서 ‘아저씨’를 바라보게 된다.
- ⑤ ‘독자’는 ‘나’가 ‘아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판단하며 읽게 된다.

42. **명작소설**이 갖는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고상한 취미를 보여준다.
- ② 인물의 사회적 지위를 강화한다.
- ③ 인물의 합리적 태도를 강조한다.
- ④ 인물의 이기적 성격을 나타낸다.
- ⑤ 인물의 허위적 면모를 드러낸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김영철 범플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것은 아마 여태껏 맛을 몰랐지. 집달리*를 데리고 와서 말짱만 박어 노면 아무리 자네네가 피땀을 흘려 지어 논 농사라도 다치는 손끝도 대지 못하는 것이야. 그러나 (하며 박침지 옆으로 와서 앉는다) 나 역시 이런 일은 허구 싶지 않으니까 자네하고 또 한번 의논을 좀 할 일이 있네. 내 이야기 좀 들어주겠나?

박침지, 고개를 든다.

김영철 자네 딸 말이야. (홀깃 입분이를 본다. 입분이, 상을 찌푸리며 소스라친다. 잠깐 주저한 후에) 저 애를 나한테 보내지 않겠나?

박침지의 눈이 다시 험해진다.

김영철 허..... 무어 어떻게 알 것이 아니라, 입분이만치 생긴 얼굴로 이런 시골 구석에서 썩는 것은 하도 아까우니 말일세. 내가 데려다가 서울로 보내서 공부도 시키고 좋은 자리 있으면 시집도 잘 보내줍세그러. 저렇게 동탕한 얼굴이면 서울 가서 넉넉히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살 수 있단 말이지. 그런다면 나도 오늘 차압한 것을 풀어주겠네. 어쩐가? 딸 좋은 데로 보내고 차압한 것도 다 풀어준다는데 싫은가? 차압한 것을 풀어 주다 뿐인가, 자네 빚을 원통 탕감해 줘세.

박침지 이를 악물고 벌떡 일어선다. 김영철도 깜짝 놀라 일어선다.

박침지 딸까지 뺏어가! (금방 덤벼들 듯하다)

김영철 아-니 그렇게 알 것이 아니라 서울 보내 공부시켜 주마는 게 아닌가. ㉠ 나는 자네 딸 위인이 아까워서 그러는 걸세.

박침지 어째!

김영철 (태도가 돌변한다. 노하여) 싫으면 고만 두게! 나는 저 위해서 하는 소린데 그래 그러고 덤비면 어쩔 테야! (손에 든 문서를 내 흔든다) 법이 있어. 법이. 자네 싫으면 고만이지 나는 오늘 집행하러 왔으니까 집행이나 해 가면 고만일세. (천천히 나가는 척하다가 도로 돌아선다. 소리를 사(私)하게 해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응. 어쩐가? 내가 해로운 소리 하나. 입분이만 내한테로 보내면 집행한 것도 풀어주고 빚도 탕감해 준다는 것이 그리 해로운 소린가. 앞으로 자네네 살림도 좀 보아줄 테고 그리면 피차 다 좋지 않은가. 입분이로 말해두 제 집에서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고대광실 좋은 집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입고 있으면 그에서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나? ㉡ (박침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도로 가까이 온다) 어때, 응?

박침지 ㉢ 어서 집행이나 해 가우!

김영철 거 사람 꽤 고집 세군. 그래 내가 집행을 해 가면 이로우 게 무어야. 몇 식구가 쫄쫄 굶고 엄동설한에 달달 떨며 얼어 죽었으면 소원이겠나. 이 집 이 세간나부랭이를 내가 하나나 그냥 둘 줄 알고. 흥, 내 내일 다시 나와 이놈의 주춧돌까지 다 빼 갈 테야. 제가 이 내서 배겨나지를 못하지. (점점 흥분하여) 쪽박을 차고 나서 구야 말지. 돈 내놔 돈! 칠십팔 원 삼십구 전을 당장에 내놔. 칠십팔 원 삼십구 원 아니, 칠십팔 원 삼십구 전! 어서 썩 내놔!

박첨지 기운이 점점 죽어간다.

(중략)

입분이 (여태껏 이 모양을 보고 고민하고 섰던 입분이 별안간 뛰어가 박첨지의 가슴을 붙들고) 아버지, 저는 갈 테야요!

박첨지 뭐야?

입분이 저는 갈 테야요!

박첨지 가다니?

입분이 저 양반을 따라 갈 테야요!

박첨지 (비틀비틀하며) 너 거 정말이냐. 가다니, 가다니?

입분이 가요!

박첨지 (우는 소리로) 아니다. 죽으면 같이 죽지 너를 내가 팔 어떡겠니.

입분이 아니예요. ㉠저는 서울이 가고 싶어요! 이런 시골 구석에 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저 양반 따라가 호강하고 싶어요.

김영철 (광희*하야) 너 거 정말이냐. 응. 정말이지?

입분이, 대답 않고 무서운 눈으로 김영철을 노려본다.
김영철,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박첨지 (그런 것은 모르고 의외의 입분이 말에 놀라) 너 거 정말이냐?

입분이 정말이지요! 나는 이런 두메 구석에서 썩기는 싫어요!

박첨지 예기 망할 자식! (별안간 입분이를 떼다밀어 입분이는 김씨 앞에 가 쓰러진다) 뉘져라! 이 놈에 자식!

김영철 (입분이를 일으키며) 허! 다치지 않았나?

김 씨 이애. 이게 모두 웬일이냐. 너 정말 가라니?

입분이 가요. (일어난다) 지금 곧 가요! (김영철에게) 그 문서 이리 주세요.

김영철 어 그 문서야.

입분이 준다고 그랬지요. 이리 주세요. ㉡(문서를 뺏아서 기가 막혀 서 있는 김영철 앞에서 북북 찢어 버린다) 자 이러면 일 다 되었지요? 갑시다.

입분이 기막혀 서 있는 김영철을 재촉해 나간다.

김 씨 (입분이를 붙들고 쫓아가며) 아이구 이애, 아이구 이애, 이게 웬 일이냐. (느티나무 밑에 가 주저앉는다)

김영철과 입분이 퇴장. 박첨지의 심각한 너오. 김씨의 절망.

- 유진오, 「박첨지」 -

* 집달리: 재판 결과를 집행하거나 법원 서류를 보내는 일을 하는 직원.
* 광희(狂喜): 미친 듯이 기뻐함.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 전개에 따라 비극성이 고조된다.
- ② 공간 변화에 따라 분위기가 반전된다.
- ③ 독백으로 인물의 내적 갈등을 드러낸다.
- ④ 시간이 역전되어 과거 사건이 재현된다.
- ⑤ 인물의 대사를 통해 관객의 참여를 유도한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희곡은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그것을 성취하려는 '의지'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 ① ㉠은 본래의 목적을 숨기며 말한 것이다.
- ② ㉡은 상대방을 위로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 ③ ㉡은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자신을 희생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 ⑤ ㉡은 자신의 결정을 되돌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 작품은 당대 사회상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 당대의 세태와 관습뿐 아니라 의식 등을 다각도로 확인할 수 있다.

- ① '김영철'이 법을 내세워 협박하는 것을 보니 법률이 악용되기도 했음을 알 수 있군.
- ② '김영철'이 빚 대신 '입분'을 요구하는 것을 보니 딸이 금전적 거래의 대상이 되기도 했음을 알 수 있군.
- ③ '김영철'이 서울에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말한 것을 보니 시골과 서울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박첨지'가 '입분'에게 호통을 치는 것을 보니 가부장적 권위로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던 사회였음을 알 수 있군.
- ⑤ '박첨지'가 '김영철'의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것을 보니 당시의 농민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군.